

남녀 고등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개념도 연구

이 은 영

이 정 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남녀고등학생의 우정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귀납적으로 우정을 개념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우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시각화하였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남학생그룹에서 93개, 여학생그룹에서 100개의 진술문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분석결과, 남녀 집단의 최종 개념도 모두 '실제적-관념적' 측면과 '행동적-정서적' 측면의 2개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의 수는 4개로 동일했으나, 범주에 속한 진술문의 구체적 내용에는 남녀 집단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우정을 행복의 원천이자, 일상을 공유하는 격 없는 사이,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고 정서적인 유대를 나누며 서로 돕고 돌보는 관계로 개념화한 반면, 여학생들은 일상을 공유하는 격 없는 사이이자, 서로 돕고 돌보는 관계, 그리고 행복의 원천이자 정서적 연결과 헌신을 주고받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공감과 유대', 그리고 '행복의 원천'을 더 중요시하고, 여학생은 '돌봄과 지원'과 '격 없는 사이'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주제어 : 남녀고등학생, 우정, 개념도, 다차원척도법, 군집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정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154 / E-mail: bice0213@gmail.com

‘친구’는 어린 시절에는 실수하지 않게 해 주고, 한창나이일 때에는 고상한 업적을 쌓을 수 있게 해주며, 노인이 되었을 때는 돌보아 줌으로써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우정’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30BC/2013) 이래, 우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다. 우정은 문학, 철학, 윤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오랜 관심사였으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우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Youniss & Haynie, 1992). 특히 경험적 연구를 중시해 온 심리학에서 우정은 그 자체로 연구되기보다는 ‘또래 관계’나 ‘또래 애착’ 등의 유사 개념으로 대체되어 연구되었다(구본용, 2012; 권기수, 김숙령, 2010; 김윤경, 이옥경, 2001; 박은민, 2010; Sabatelli & Anderson, 1991).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긍정심리학의 등장과 방법론 발달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크게 조망받지 못했던 우정과 같은 인간이 지닌 긍정적 속성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제 우정은 정신건강에 기여 가능한 가치 있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정을 우정 그 자체로 정의하고 측정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Hojjat, Moyer & Halpin, 2017). 특히 청소년 기에는 친밀한 대인관계 적응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는 점에서(Sullivan, 2013), 우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우정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요 변인이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Friedman & Rizzolo, 2018; Lewis & Feiring, 1989). 우정적

관계는 즐거움을 주는 관계이며, 우정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자원이자, 성숙한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고, 사회·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해 안정감을 제공한다(Bukowski & Hoza 1989). 또한, 우정은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다(Barry, Madsen & DeGrace, 2016; Hills & Argyle, 2001; Myers, 2000; Reis, Collins & Berscheid, 2000). 우정과 행복에 관한 다양한 문화권의 연구들을 종합분석한 Demir(2015)는 우정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문화권을 막론하고 개인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기도 하다. 최근 팬데믹 상황을 맞아 사람들 간의 연결과 유대가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우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성개념으로서의 우정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Hojjat et. al, 2017), 그동안 서구권을 중심으로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우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owenthal, Thurnher와 Chiriboga(1975)는 우정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스스로를 중요한 관계의 구성원으로 느끼는 자발적이고 독특한 이원적 관계’라고 하였고, Hartup(1978)은 ‘애정, 관심, 흥미 및 정보를 공유하며 타인과 접촉하는 이원적이며 독특한 애착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Damon(1979)은 ‘서로 도와주며 이해하고 생각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감정이나 비밀을 이야기하며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 고통이나 불편감을 주지 않는 지속적이며 양방향적인 관계’로 정의하였다. 한편 Hallinan (1981), Ladd와 Coleman(1993)은 ‘자주 만나거나 함께 있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함께 있는 동

안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자발적인 관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널리 인용되는 정의는 Hays (1988)가 정의한 '두 사람 간의 자발적인 상호 의존으로서 다양한 영역의 경험과 만족을 제공하는 관계'이다.

우정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꼽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Biglow와 La Gaipa(1975)는 도움, 활동 공유, 수용, 존경, 충성, 진실성, 공통의 취미 등을 제시하였으며, Weiss와 Lowenthal (1975)는 유사성, 상호성, 수용, 개방성, 유일함, 양립가능성 등을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Hartup(1978)은 친사회적 지지, 친밀감, 애정, 유사성을 우정의 구성요소로 보았고, Argyle과 Furnham(1983)은 말하기, 먹기, 마시기, 취미 등 특정 활동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Furman과 Bierman(1984)은 이러한 특정 활동의 공유와 더불어, 애정, 물리적/심리적 지지, 근접성, 신체적 특성을 구성요소로 꼽았다.

우정의 구성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들은 우정 연구의 초석이 된 가치 있는 자료들이지만, 현시대와 동떨어진 시대의 것이기도 하고 서양학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현상을 관찰하거나 귀납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의 통찰과 연역적 논증에 의한 이론적 설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상을 생동감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화와 세대 간 차이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우정 개념을 예전 서구권의 모델 그대로 들여와 연구하기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탐색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구에서는 우정을

주제로 한 경험적 연구들(Cuadros & Berger, 2016; Demir, Özen & Doğan, 2012; Maunder & Monks, 2019; Pickard, Happé, & Mandy, 2018; Shimiz, Nakashima, & Morinaga, 2019)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고. 최근에는 우정을 주제로 한 전문학술서적으로 핸드북(Hojjat et al., 2017)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1980년대에 우정의 본질과 개념, 발달에 대한 연구들(윤진, 1984; 이주옥, 1985; 한덕웅, 1985; 한덕웅, 이상욱, 1988)이 잇달아 발표된 바가 있지만, 그 수가 한 손으로 꼽을 만큼 매우 적고 안타깝게도 90년대까지 후속연구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경험적 연구들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박찬은, 김도연, 2017; 심은신, 이동훈, 2011; 이안나, 박승민, 2018), 우정관계 질투와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의 관계(배재현, 2007), 또래 경험과 외로움 간의 관계(도현심, 1999; 문소현, 2009) 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정을 조망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우정의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우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기초가 될 만한 탐색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까닭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정의 개념적 특징들을 탐색하고, 이를 구성개념으로 추출하는 과정은 학문적 측면에서나 실제적 측면에서나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탐색연구가 이루어진다면, OECD 국가 중 행복도가 매우 낮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정이 가지는 긍정적 영향력에 관한 기제를

밝힐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기제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긍정적 개입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우정연구에서 성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서, 여러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우정의 특징과 발달양상에서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Caldwell & Peplau, 1982; Jones, 1991; Karweit & Hansell, 1983; Sharabany, Gershoni, & Hofman, 1981). 아동·청소년기의 우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소녀들의 우정은 더 집중적이고 독점적인 특성이 있고(Bauminger, Finzi-Dottan, Chason & Har-Even 2008; Roy, Benenson & Lilly, 2000), 소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와 이야기하며 보내며 서로 대화하는 것을 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다(Arnett, 2010). 또한, 소년들에 비해 소녀들은 우정을 더 애정적이고 서로 돕고 돌보는 관계로 평가하며, 친구를 더 믿고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Wissink, Deković & Meijer, 2009). 반면, 소년들은 운동이나 취미 같은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우정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Radmacher & Azmitia,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정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정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여, 우정을 귀납적으로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정을 개념도 방법(Concept Mapping)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우정 개념도가 남녀 집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녀고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본 연구처럼 학문적으로 정의가 정립되기 전 단계에서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 등의 질적 자료를 탐색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하다(Freeman & Jessup, 2004).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방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남녀 고등학생 집단

본 연구의 참여자는 D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8명과 A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6명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참여자 수는 40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제한이 없으며 연구에 따라 다양한 예외가 허용된다(Kane & Trochim, 2007). 적게는 한 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많게는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Goodyear, Tracey,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의 남학교 1개교와 여학교 1개교의 협조를 얻어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1학년 남녀학생 각각 8명과 6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가 담긴 동의서 및 부모동의서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 학생과 부모 모두 동의를

한 경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학업에 방해 되지 않는 시간에 두 차례 집단모임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 평정 집단

본 연구의 평정 집단은 상담전공 교수 1명, 박사과정생 2명, 석사과정생 2명을 포함한 5명이었다. 연구자 평정 집단은 초점질문 선정 과정과 진술문 분포도를 보고 범주의 수와 범주 명, 차원 명을 정해 최종 개념도를 완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연구 절차

초점 질문의 개발

개념도 방법은 사람들의 인식 및 경험과 같은 질적 자료의 수집에 관심이 있으므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필요치 않으며, 자료의 수집 이전에 준비 단계로 초점 질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예비 질문목록을 만들어, 연구자 평정 집단으로부터 초점질문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 내용검토를 받았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초점질문의 뒷부분을 비워두고 참여자들이 완성하게 하는 형식이 좋다는 Kane과 Trochim(2007)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의 초점질문은 최종적으로 ‘우정이란? _____’으로 결정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1차 집단모임

초점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첫 번째 집단모임인 브레인스토밍 모임을 진행하였다. 남녀 각 집단에게 초점질문을 제시한 후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메모지에 의견을 적어내도록 하였다. 풍

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생각을 꺼내어놓도록 독려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난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브레인스토밍 결과 남학생그룹에서는 129개의 진술문이, 여학생그룹에서는 142개의 진술문이 산출되었다. 브레인스토밍에 소요된 시간은 약 60분이었다.

평정 및 분류를 위한 2차 집단모임

브레인스토밍 모임을 통해 수집한 1차 자료는 진술문의 형태로서, 양적 분석을 위한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 중요도 평정과 분류라는 구조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에, 참여자들이 1차 집단모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산출한 진술문들을 연구자 평정집단이 중복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정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93개의 진술문이, 여학생 집단에서는 100개의 진술문이 구조화를 위한 유사성 분류작업에 사용되었다. 연구진이 정리한 진술문들을 목록화한 다음, 2차 집단모임에서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 진술문의 중요도를 1-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어, 진술문들을 분류를 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진술문들을 카드로 제작하였고, 참여자들이 하여금 각 카드에 적힌 진술문들을 유사한 것끼리 덩어리 짓도록 요청하였다. 이때 진술문들을 모두 하나의 꾸러미에 넣을 수는 없고, 하나의 범주를 만들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진술문이 필요하며, 하나의 진술문을 여러 꾸러미에 중복되게 넣을 수 없다는 조건을 따르도록 하였다. 2차 모임 결과 각 남학생이 제시한 덩어리 수는 4개~12개의 범위안에 있었고 각 여학생이 제시한 덩어리 수는 7개~13개의 범위 안에 있었다. 참여자들이 진술문 평정 및 분류에 소요한 시간은 남녀 집단 모

두 약 90분이었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두 차례의 집단모임을 통해 남녀고등학생 두 집단으로부터 각기 수집한 질적 자료를 SPSS Program 21.0을 사용하여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참여자가 분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 범주로 묶인 진술문은 1, 다른 범주로 묶인 진술문은 0으로 코딩하여 개인별 유사성행렬표를 만들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93×93 유사성 행렬표가 8개, 여학생의 경우에는 100×100 유사성 행렬표가 6개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개인 유사성 행렬표를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Group Similarity Matrix; GSM)로 만든 후 SPSS의 Alternating Least-squares Scaling(ALSCAL)을 이용하여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실시하였고, 이때 모형의 측정수준은 비율척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차원의 수를 결정하였고, 진술문들의 좌푯값을 산출하였으며, 좌푯값에 근거한 분포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산출된 좌푯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제안되는 군집의 수를 확인하였다. 통계 처리 이후에 연구자 평정집단이 범주(꾸러미)로 묶인 진술문들을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분류 결과와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참고하여 범주명과 차원명을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차원명과 범주명이 명시된 개념도를 그리고, 각 범주별 대표 진술문과 중요도를 표로 제시하였다.

결 과

다차원척도법 분석결과

차원의 수 결정

차원의 수 결정을 위한 다차원척도법 분석을 실시하기 전, 먼저 1차 집단모임에서 산출된 진술문들을 2차 모임에서 유사성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분류하게 함으로써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진술문 형태의 질적 자료를 양적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양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개별 유사성행렬표를 합산하여 집단유사성행렬표로 만든 다음 다차원척도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차원에 따른 스트레스 값과 설명량(R^2)이 산출되었다. 남학생 집단 자료의 스트레스 값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차원 추출 시 .48($R^2=.52$), 2차원까지 추출했을 때는 .26($R^2=.77$), 3차원까지 추출했을 때는 .17($R^2=.86$)이 얻어졌다. 여학생 집단 자료의 스트레스 값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차원 추출 시 .53($R^2=.47$), 2차원까지 추출했을 때는 .31($R^2=.71$), 3차원까지 추출했을 때는 .20($R^2=.83$)이 얻어졌다. Kruskal과 Wish는 스트레스가 차원의 수가 증가하면 항상 감소하므로 이들의 그림을 통하여 스트레스가 제일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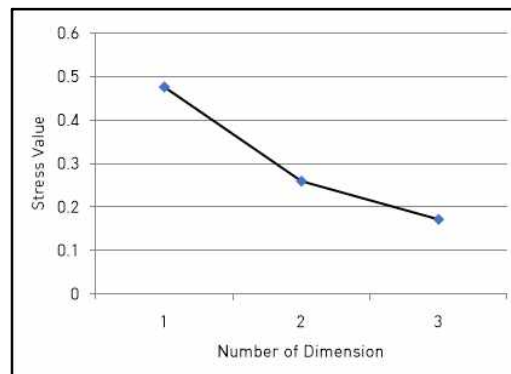


그림 1. 차원에 따른 스트레스 값(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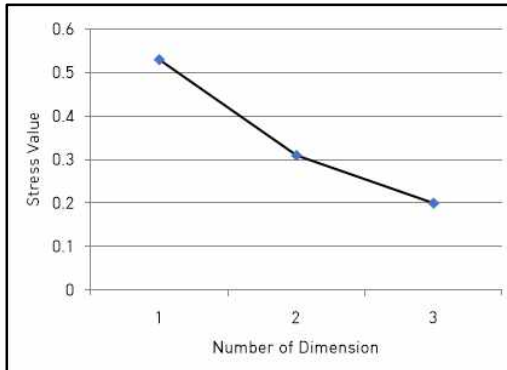


그림 2. 차원에 따른 스트레스 값(여학생)

이 꺾이는 곳에 대응하는 차원을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최용석, 2013에서 재인용). 본 자료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 1차원에서 2차원이 될 때 스트레스 값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므로 차원의 수를 2로 결정하였다. 2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값은 남학생 데이터 .26,

여학생 데이터 .31로 나타났는데, Trochim의 메타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념도 연구들에서의 평균 스트레스 값은 0.285(SD=0.04)로 95%의 개념도 연구에서 스트레스 값은 0.205-0.365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Kane & Trochim, 2007).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볼 때, 본 연구데이터의 스트레스 값인 .26과 .31은 평균 수준의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진술문 분포도

우정의 개념도 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남녀고등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자료가 다차원적 도법 분석에 적합하며, 자료에 존재하는 적정 차원의 수가 2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각 진술문들을 좌푯값에 근거하여 2차원 공간에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표현하였다. 2차원 평면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한 진술문들은 참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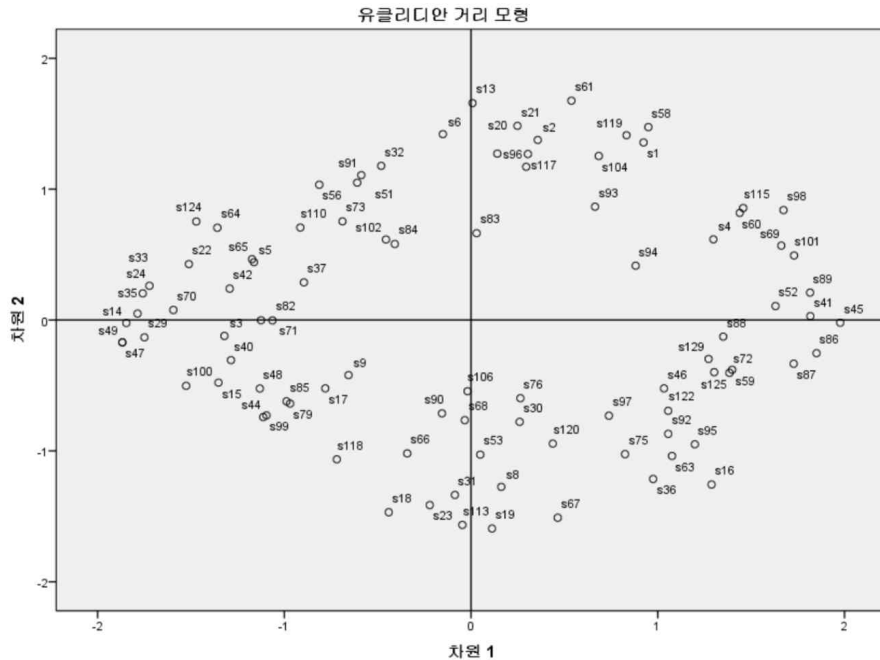


그림 3. 남학생 집단의 진술문 분포도

표 2. 집단화 절차표 (여학생)

단계	군집 수	결합 군집		계수
		군집1	군집2	
1	99	38	42	.000
2	98	27	32	.000
3	97	76	87	.000
4	96	30	45	.001
5	95	4	83	.001
(6 ~ 94단계 생략)				
95	5	2	5	1.116
96	4	3	66	1.240
97	3	1	7	1.986
98	2	1	3	4.824
99	1	1	2	6.146

2)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90단계(군집 수 3)의 계수 4.497과 91단계(군집 수 2)의 계수 6.279의 차이가 1.782로서 가장 크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결과 제안되는 군집의 수는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97단계(군집 수 3)의 계수 1.986과 98단계(군집 수 2)의 계수 4.824의 차이가 2.838로서 가장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제안되는 군집의 수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역시 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념도 연구방법은 양적으로 분석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통계적 분석결과는 참고용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Jackson & Trochim,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의 수는 연구 주제의 전체적 맥락과 연구자 및 평정자의 주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Trochim(1989)의 견해에 따라, 연구진의 진술문 내용검토 결과와 참여자들의 분류 결과를 고

려하여 가장 적절하게 범주화 가능한 최종 군집의 수를 4로 결정하였다.

최종 개념도 분석 결과

남학생 자료로부터 도출된 최종 개념도와 여학생 자료로부터 도출된 최종 개념도를 각각 그림 5와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남녀학생들로부터 도출된 최종 개념도는 모두 2개의 차원과 4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술문 분포도 상에 좌표로 표시된 진술문들의 위치와 거리, 그리고 각 진술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개념도의 차원과 군집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차원의 명명

먼저 남학생 자료에서 도출된 최종 개념도를 살펴보면, 그림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차원 1은 '관념적-실제적' 차원으로, 차원 2는 '행동적-정서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차원 1에 해당하는 x축의 왼편에는 우정에 대한 관념적인 내용의 진술문들이, 오른편에는 실제적인 내용의 진술문들이 분포하고 있다. 관념적인 내용의 진술문의 예로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것(s24)', '얼굴만 봐도 행복한 것(s33)', '얼굴 보면 같이 행복했던 시간과 추억이 떠오르는 사이(s47)', '어색한 분위기가 어색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s14)'과 같은 진술문들을 들 수 있고, 실제적인 내용의 예로는 '숙제를 공유하는 것(s45)', '대신 프린트를 해줄 수 있는 것(s86)', '핫스팟 켜줄 수 있는 사이(s89)', '떡을 것을 나눠 먹는 것(s87)'과 같은 진술문들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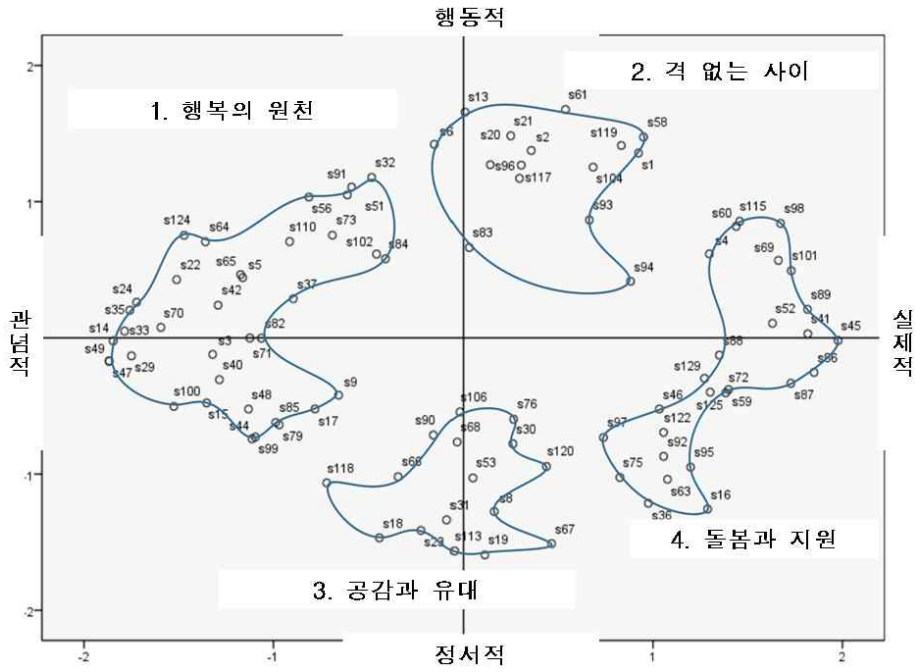


그림 5. 남학생 집단 최종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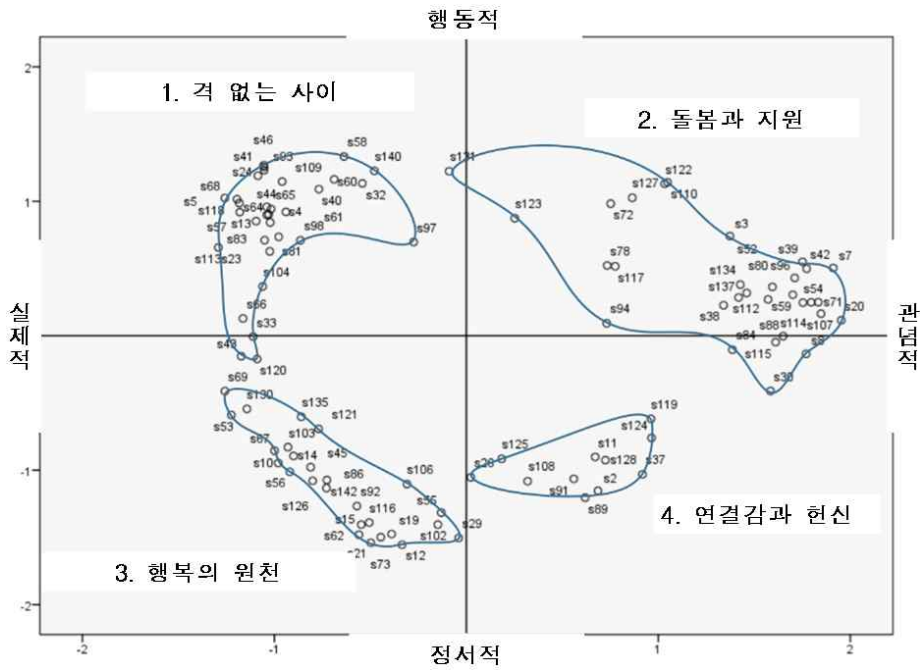


그림 6. 여학생 집단 최종 개념도

차원 2에 해당하는 y축의 위쪽에는 우정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진술문들이, 아래쪽에는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진술문들이 분포하고 있다. 행동적 측면의 우정에 대한 진술문의 예로는 '친구 집에서 밤새 떠들다 자는 것(s6)', '욕을 해도 기분 상하지 않는 것(s13)', '같이 2박 3일 여행 할 수 있는 사이(s20)', '같이 사진을 많이 찍은 것(s21)'과 같은 진술문들이 위치하고 있고, 정서적 측면의 우정에 대한 진술문의 예로는 '친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믿는 것(s19)', '친구가 울 때 조용히 손잡아줄 수 있는 사이(s31)', '나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s23)', '서로 힘들고 지쳐도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이(s118)'와 같은 진술문들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여학생 자료에서 도출된 최종 개념도를 살펴보면, 그림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차원 1은 '실제적·관념적' 차원으로, 차원 2는 '행동적·정서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차원 1에 해당하는 x축의 왼편에는 우정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의 진술문들이, 오른편에는 관념적인 내용의 진술문들이 분포하고 있다. 실제적 내용의 진술문의 예로는 '치킨을 같이 먹는 존재(s68)', '알몸도 공유할 수 있는 사이(s57)', '집 가서 계장 뺏어먹는(s23)', '틱톡도 같이 찍을 수 있는(s66)'과 같은 진술문들을 들 수 있고, 관념적인 내용의 진술문의 예로는 '의리이다(s20)', '버팀목(s107)', '가족 같은 사이(s71)', '같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s42)'과 같은 진술문들을 들 수 있다.

차원 2에 해당하는 y축의 위쪽에는 우정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진술문들이, 아래쪽에는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진술문들이 분포하고 있다. 행동적 측면의 진술문들의 예로는 '답다리

도 나눠줄 수 있는 존재(s60)', '속바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것(s32)',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모닝콜 해줄 수 있는 것(s123)', '토해도 안 버리고 집 데려다주는 존재(s131)'와 같은 진술문들을 들 수 있고, 정서적 측면의 진술문들의 예로는 '재미이다(s55)', '웃음이다(s37)',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s89)', '대화 내용이 무한인(s19)'과 같은 진술문들을 들 수 있다.

범주의 명명, 범주별 대표 진술문 및 중요도

군집분석 결과 같은 군집으로 추출된 진술문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범주명으로 명명하였고 이때, 2차 모임에서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1차 모임을 통해 산출했던 진술문들을 분류한 다음 명명했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남녀 집단에서 명명된 각 범주의 명칭, 각 범주별 대표 진술문, 그리고 참여자들이 평정한 진술문의 중요도의 평균값을 표 3과 4에 각각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군집 1로 묶인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정관계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재미, 행복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참여자들이 제안했던 군집명인 '정신적으로 행복한 사이', '서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같이 있으면 즐거운' 등을 참고하여 최종 군집명을 '행복의 원천'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의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갑작스럽거나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때로는 심한 장난도 칠 수 있는 사이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먹고, 놀고,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참여자들이 직접 제안했던 군집명인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함께 하는 사

표 3. 범주별 대표 진술문 및 중요도(남학생)

범주명	번호	대표 진술문	중요도 평균값
행복의 원천	51.	같이 자면서 이야기할 때 밤새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는 사이	4.57
	49.	행복한 추억을 공유하는 것	4.5
	47.	얼굴 보면 같이 행복했던 시간과 추억이 떠오르는 사이	4.38
	33.	얼굴만 봐도 행복한 것	4.00
	5.	만나자마자 웃으며 인사하는 사이	3.63
	44.	무슨 말 하든지 웃어주는 존재	3.63
		전체 평균	4.12
격 없는 사이	96.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줄 수 있는 것	4.25
	58.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빵을 때리러 먼 거리도 지하철타고 올 수 있는 사이	3.75
	2.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받아주는 것	3.38
	119.	셀카 찍을 때 “너는 왜 가만히 있어도 얼굴을 몰아주냐?”고 하는 것	3.25
	117.	스스럼없이 서로 욕해도 기분 나쁘지 않은 사이	3.00
	93.	야한 셀카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이	2.88
		전체 평균	3.41
공감과 유대	53.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4.88
	113.	친구의 슬픔을 같이 느끼는 것	4.75
	120.	푸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이	4.63
	118.	서로 힘들고 지쳐도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이	4.50
	18.	이해하는 것	4.38
	31.	친구가 올 때 조용히 손잡아줄 수 있는 사이	4.00
		전체 평균	4.52
돌봄과 지원	122.	친구가 옳지 않은 길로 갈 때 때려줄 수 있는 것	4.63
	129.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졸고 있을 때 깨워주고 서로 졸음킴 나눠주는 사이	3.75
	63.	축구할 때 실수해도 잘했다고 위로해주는 사이	3.38
	72.	버스비 대신 내주는 것	3.38
	75.	커밍아웃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3.25
	86.	대신 프린트를 해줄 수 있는 것	3.25
		전체 평균	3.60

표 4. 범주별 대표 진술문 및 중요도 (여학생)

범주명	번호	진술문	중요도 평균값
격 없는 사이	118.	엽기떡볶이를 같이 먹는 것	4.83
	93.	똥 쌀 때 영상 통화 할 수 있는	4.83
	81.	노래방 같이 가는 것	4.67
	33.	목욕탕도 같이 갈 수 있는 사이	4.50
	98.	야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	4.50
	44.	속옷 뭐 입었는지 서로 보는 사이	4.33
		전체 평균	4.61
돌봄과 지원	59.	곤란한 고민도 털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사이	5.00
	39.	친구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옆에서 챙겨주는 것이다	5.00
	78.	친구가 집을 나왔을 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5.00
	42.	같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4.67
	122.	슬플 때 같이 슬퍼 해주는 것	4.67
	117.	시험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	4.17
		전체 평균	4.75
행복의 원천	14.	친구가 먹을 것을 갖고 있으면 한입만을 외치는 사이	4.83
	128.	웹툰 같은 사이	4.83
	121.	못생긴 표정을 지을 때 더 못생기게 표정을 짓는 것	4.67
	37.	웃음이다	4.50
	21.	뭉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4.50
	45.	방해할 때가 제일 재밌는	4.33
		전체 평균	4.61
연결감과 현신	108.	멀리 살아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	5.00
	125.	한번 댕겼으면 평생 끊을 수 없는 사이	4.83
	119.	돈을 아끼지 않는 것	4.67
	11.	열쇠와 자물쇠이다	4.67
	128.	자매	4.33
	107.	버팀목	3.83
		전체 평균	4.56

이,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친구끼리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참고하여 최종 군집명을 '격 없는 사이'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의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힘들 때 함께해주며 위로를 주고받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참여자들이 직접 제안했던 군집명인 '이심전심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이' 등을 참고하여 최종 군집명을 '공감과 유대'로 명명하였다. 군집 4의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수를 했을 때 감싸주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참여자들이 제시했던 군집명 '곤란한 요구를 들어주는 사이',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이', '동행해주는', '부탁, 도움' 등을 참고하여 최종 범주명을 '돌봄과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남학생 집단에서 산출된 진술문 평정의 평균값은 '공감과 유대'(M=4.52), '행복의 원천'(M=4.12), '돌봄과 지원'(M=3.60), '격 없는 사이'(M=3.41) 순이었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군집 1로 묶인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함께 먹거나 취미 생활을 같이하는 등 일상 공유에 대한 진술문들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된 진술문들이 대부분이었고, 참여자들이 제시한 군집명인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편한 사이', '당연한 것', '일상', '함께하는' 등을 고려하여 군집 1의 최종 명칭을 '격 없는 사이'로 명명하였다. 군집 2의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며 서로 챙겨주는 것이 우정이라는 진술문들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참여자들이 제안했던 군집명인 '필요할 때 있어 주는', '도와주는', '챙기는' 등을 고려하여

군집 2의 최종 명칭을 '돌봄과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에는 서로 장난치고, 함께 놀며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것과 관련된 진술문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참여자들이 제안했던 군집명인 '노는 것', '재밌음', '웃긴' 등을 고려하여, 군집 3의 최종 명칭을 '행복의 원천'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에는 우정은 끊을 수 없고, 소중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관련된 진술문들이 다수를 이루었고, 참여자들이 제안했던 군집명인 '중요', '가족', '소중한', '의리', '다 줄 수 있는' 등을 고려하여 군집 4의 최종 명칭을 '연결감과 헌신'으로 명명하였다. 여학생 집단에서 산출된 진술문 평정의 평균값은 '돌봄과 지원'(M=4.75), '격 없는 사이'(M=4.61), '행복의 원천'(M=4.61), '연결감과 헌신'(M=4.56)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남녀고등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내용을 질적 연구방법인 집단인터뷰 방식을 통해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이라는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개념도 방법을 통해 이들의 우정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들은 우정을 행복이나 즐거움의 원천으로서, 일상을 공유하는 격 없는 사이,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고 정서적인 유대를 나누며 서로 돕고 돌보는 관계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우정을 일상을 공유하는 격 없는 사이이자 서로 돕고 돌보는 관계,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이

자 정서적 연결과 헌신을 주고받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종 개념도의 차원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한 최종 개념도 모두 '실제적·관념적' 측면과 '행동적·정서적' 측면의 2개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집단별 개념도 상의 축의 위치는 달랐지만, 차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우정은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관념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 그리고 행동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발달 단계상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은 우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진술뿐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였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진술문으로는 '열쇠와 자물쇠', '버팀목', '가족' 등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는 '피시방 같이 가는 사이', '치킨을 같이 먹는 사이', '숙제를 공유하는 사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 진술문들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또한, 우정에 대한 남녀고등학생들의 진술문에서 행동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이 구분되어 개념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닭다리도 나눠줄 수 있는 사이', '욕을 해도 기분 상하지 않는 사이', '같이 2박 3일 여행 할 수 있는 사이',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모닝콜 해줄 수 있는 사이' 등과 같은 행동적 차원의 진술문은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믿는 것', '울고 있을 때 조용히 손잡아줄 수 있는 것', '나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이', '힘 들고 지칠 때 곁에 있어 주는 사이',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등의 정서적

차원의 진술문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도출된 군집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남학생들이 개념화한 우정은 '행복의 원천', '격 없는 사이', '공감과 유대', '돌봄과 지원'의 4개 군집으로, 여학생들이 개념화한 우정은 '격 없는 사이', '돌봄과 지원', '행복의 원천', '연결감과 헌신'의 4개 군집으로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군집명으로 보면 남녀 집단에서 모두 '행복의 원천', '격 없는 사이', 그리고 '돌봄과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원과 함께 살펴보면 진술문의 성격이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격 없는 사이' 군집에 속한 진술문들을 비교해보면, 남녀학생 모두 일상을 허물없이 함께 하는 사이로서, 실제적이면서 행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행복의 원천' 군집에 속한 진술문들을 보면 여학생의 경우 '웹툰 같은 사이', '웃음이다', '뭉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이' 등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표현이 많이 산출된 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 '같이 자면서 이야기할 때 밤새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사이', '만나자마자 웃으며 인사하는 사이', '무슨 말을 하든지 웃어주는 존재' 등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둔 표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소년들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우정의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고 한 Radmacher와 Azmitia(2006)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또한, '돌봄과 지원' 군집에 속한 진술문들을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경우 '축구할 때 실수해도 잘했다고 위로해주는 사이', '버스비 대신 내주는 것', '대신 프린트를 해줄 수 있는 것' 등 돌봄과 도움을 제공하는 실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표현이 많이 산출된 데 반해, 여학생의 경우 '곤란한 고민도 털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사이',

‘같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슬플 때 같이 슬퍼 해주는 것’ 등 제공하는 돌봄과 도움에 대해 관념적 측면에 초점을 둔 표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두 집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은 ‘정서적 차원’에 해당하는 군집이었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친구의 슬픔을 같이 느끼는 것’, ‘이해하는 것’ 등 감정의 공유, 즉 공감과 그로 인한 유대를 표현하는 진술문이 주를 이룬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멀리 살아도 자주 만날 수 있는’, ‘한번 맺으면 평생 끊을 수 없는 사이’, ‘열쇠와 자물쇠’ 등 남학생보다 훨씬 밀착된 연결감과 헌신적 관계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녀들의 우정은 소년들에 비해 더 집중적이고 독점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 Bauminger 등(2008)과 Roy 등(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각 군집의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남학생들의 경우 개념도 상의 왼쪽 ‘관념적 축에 치우친 우정 개념, 즉 ‘공감과 유대’, 그리고 ‘행복의 원천’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개념도 상의 위쪽 ‘행동적 축에 치우친 우정 개념, 즉 ‘돌봄과 지원’과 ‘격 없는 사이’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들이 제시한 진술문 중에 ‘필요할 때 찾는 것’,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모닝콜 해줄 수 있는 것’, ‘화장품 없을 때 빌려주는 것’,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과 같은 진술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들이 우정을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돕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움 제공과 활동의 공유가 주요한 우정의 요소로 확인되었던 Bigelow와 La Gaipa(197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

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청소년들의 우정에 대한 내러티브를 분석한 Azmitia와 Radmacher의 질적연구(2005)에서는 서로에 대한 충성심과 믿음, 정서적 지지가 주요 구성요소로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남학생 집단의 ‘공감과 유대’, ‘돌봄과 지원’, 여학생 집단의 ‘돌봄과 지원’, ‘연결감과 헌신’ 등에서 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기의 우정은 교환이론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충성심과 친구의 안녕에 대한 염려가 두드러진다고 한 La Gaipa와 Wood(1981)의 주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우정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친구의 안녕을 위해 돌보고 서로 신뢰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친구가 불리한 상황에서 편들어 주기’, ‘성공 소식을 나누기’, ‘정서적으로 지지하기’, ‘서로 믿고 비밀을 공유하기’, ‘필요할 때 도움 주기’ 등으로 우정의 범문화적 특징(Argyle & Henderson, 1984)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정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그들의 생생한 언어로 수집하여, 이들이 생각하는 우정 개념의 구성요소들을 탐색적 방식으로 도출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질적 연구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를 양적 연구 방식을 통해 분석하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없는 우정을 경험적으로 구성해보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최근의 국외 연구들에서는 여학생들의 우정은 남학생들보다 애정이 더 깊고 서로 더 잘 도와주며 더 잘 돌보는 관계(Wissink,

Deković & Meijer, 2009)인데 반해, 남학생들은 그보다는 운동이나 취미 같은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Radmacher & Azmitia, 2006)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 또한 의외로 꼽을 만하다.

군집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들은 활동의 공유보다 감정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것을 더 중요한 우정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군집은 '공감과 유대'였으며, 남학생들이 산출한 진술문들 중 '친구가 울 때 조용히 손잡아 줄 수 있는 사이', '친구의 슬픔을 같이 느끼는 것',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과 같은 진술문들이 다수 산출되어, 여학생 집단에 비해 적지 않았다. 이는 '남자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를, 여자들은 얼굴을 마주 보는 관계를 싹틔우는 경향이 있다고 한 서구권 학자들의 주장(Greif, 2008)과는 다소 다른 결과라 하겠다. 비견할만한 국내 선행연구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세대 남자 고등학생들이 이전 세대의 남학생들과는 달리 정서적 공감과 유대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변화를 시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만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세대 간 우정 개념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연구를 통해 보다 폭넓은 세대를 연구해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경험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념도의 차원과 군집은 하위척도나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Kane과 Trochim(2007)의 제안에 근거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남녀 고등학생들의 우정 개념도는 향후 우리나라 청

소년들의 우정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 또는 우정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소수의 연구 대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개체-기술적 접근(ideographic approach)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나 변화를 위한 개입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ardwell, Geillis, Moody & Wadeley, 2016). 그동안 제안된 국내의 우정이나 또래 관계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로서 범칙-정립적 접근(nomothetic approach)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입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Cardwell et. al., 2016).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현세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를 고려한 효과적인 개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과 인식의 내용을 수집하기 위하여 개체-기술적 접근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2개 학교 학생들을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양적 연구와는 달리, 특정 학교와 특정 학생들의 고유한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는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으로 분석한 일종의 통합방법(Mixed Methodology)연구로서 외적 타당도나 일반화 가능성이 중요한 양적 연구들과는 달리,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논점이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특성은 본 연구와 같이 질적 자료를 활용하는 탐색적 단

계의 연구가 지니는 필수 불가결한 한계점이
라 하겠다. 따라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연구풍토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무심하게 과잉
일반화하는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
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인 고등학생들이라
는 점에서, 진술문의 유사성에 따른 분류와
중요도 평정이라는 메타인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만큼 신뢰로운 인지적 판단능력이 있
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이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도 연구의 목적 자체가
참여자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수집하여 양적으로 분석한 다음
개념도라는 그림으로 시각화하고자 하는 데
있기에, 어쩌면 이는 연구방법 자체가 가진
한계점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
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자들이 생각하는 우정 개념을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인식 내용을 질적으로 접근하여 탐색하는 기
초 연구로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분용 (2012).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
응관계에서 부모, 교사, 또래관계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347-373.
- 김윤경, 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 권기수, 김숙령 (2010). 청소년 우정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9(1), 149-162.
- 도현심 (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
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
학회지*, 20(3), 33-49.
- 문소현 (2009). 학령기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및 외로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3), 401-408.
- 박찬은, 김도연 (2017).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
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1), 23-39.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에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 배재현 (2007). 우정관계 질투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39-56.
- 심은신, 이동훈 (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
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귀인
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지: 발달*, 24(2), 21-42.
- 유고은, 이민영 (2015). 친구관계의 질 척도
(FQS) 의 타당화 연구: 초기 청소년기 집
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
(1), 57-74.
- 윤진 (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94-113.
- 이주옥 (1985).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
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6(2), 35-58.
- 이안나, 박승민 (2018).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
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정관계
질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9),
269-291.

- 최용석 (2013). 다차원척도법의 산책. 서울:자유 아카데미.
- 한덕웅 (1985).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중 단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 169-191.
- 한덕웅, 이상욱 (1988).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 관한 다면·인과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1), 111-153.
- Argyle, M. & Furnham, A. (1983). Sources of satisfaction and conflict in long-term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493.
- Argyle, M. & Henderson, M. (1984). The rules of friend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211-237.
- Aristotle (2013).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역). 서울: 숲. (원서 출판 330 BC).
- Azmitia, M., Ittel, A. & Radmacher, K. (2005). Narratives of friendship and self in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5(107), 23-39.
- Barry, C. M., Madsen, S. D. & DeGrace, A. (2016). Growing up with a little help from their friends in emerging adulthood. In J. J. Arnett & J. J. Arnett (Eds.), *The Oxford handbook of emerging adulthood* (pp. 215-229).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inger, R. F., Finzi-Dottan, R., Chason, S. & Har-Even, D. (2008). Intimacy in adolescent friendship: The roles of attachment, coherence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3), 409-428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Wiley series on personality processe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Oxford, England: John Wiley.
-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 (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471-484.
- Cardwell, M., Geillis, R., Moody, R. & Wadeley, A. (2016). *Psychology A Level Year 2: The Mini Companion for AQA*. Oxford University Press-Children.
- Caldwell, M. A. & Peplau, L. A. (1982). Sex differences in same-sex friendship. *Sex roles*, 8(7), 721-732.
- Cuadros, O. & Berger, C. (2016). The protective role of friendship quality on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victimized by pe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9), 1877-1888.
- Damon, W. (1979).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 Demir, M. (Ed.). (2015). *Friendship and happiness: Across the life-span and cultures*. New York, NY.: Springer.
- Demir, M., Özen, A. & Doğan, A. (2012). Friendship, perceived mattering and happiness: A study of American and Turkish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5), 659-664.
- Freeman, L. A. & Jessup, L. M. (2004). The power and benefits of concept mapping: measuring use, usefulness, ease of use, and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6(2), 151-169.

- Friedman, C. & Rizzolo, M. C. (2018). Friendship, quality of life,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30*(1), 39-54.
- Furman, W. & Bierman, K. L.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A multimethod study of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5), 925-931.
- Goodyear, R. K., Tracey, T. J. G.,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Greif, G. (2008). *Buddy system: Understanding male friendships*.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nan, M. T. (1981). The peer influence process.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7*(3), 285-306.
- Hartup, W. W. (1978). *Issues in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London: Methuen
- Hays, R. B. (1988). Friendship. In S. Duck, D. F. Hay, S. E. Hobfoll, W. Ickes & B. M. Montgomery (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pp. 391-408). Oxford, England: John Wiley.
- Hills, P. & Argyle, M. (2001). Emotional stability as a major dimension of happ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8), 1357-1364.
- Hojjat, M., Moyer, A. & Halpin, A. M. (Eds.). (2017). *The psychology of friendship*.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son, K. M. & Trochim, W. M. (2002). Concept mapping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analysis of open-ended survey respons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5*(4), 307-336.
- Jones, D. C. (1991). Friendship satisfaction and gender: An examination of sex differences in contributors to friend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2), 167-185.
- Kane, M. & Trochim, W. M.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arweit, N. & Hansell, S. (1983).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relationships: Friendship and status. In *Friends in school* (pp. 115-130). New York: Academic Press.
- Kruskal, J. 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1), 1-27.
- La Gaipa, J. J. & Wood, H. D. (1981). Friendship in disturbed adolescents. *Personal relationships, 3*, 169-190.
- Ladd, G. W. & Coleman, C. C. (1993).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Forms, features, and functions. In Spodek, B., & Saracho, O. N.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 57-76.) New York, NY: Routledge
- Lewis, M. & Feiring, C. (1989). Early predictors of childhood friendship. In T. J. Berndt & G. W. Ladd (Eds.), *Wiley series on personality processe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246-273).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Lowenthal, M. F., Thurnher, M. & Chiriboga, D. A. (1975). *Four stages of life*. San Francisco,

- California: Jossey-Bass.
- Maunder, R. & Monks, C. P. (2019). Friendships in middle childhood: Links to peer and school identification, and general self worth.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7(2), 211-229.
- Mill, D., Duck, S. & La Gaipa, J. (1979). Interactive effects of sex and timing in self disclos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4), 355-362.
- Myers, D. 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56-67.
- Pickard, H., Happé, F. & Mandy, W. (2018). Navigating the social world: The role of social competence, peer victimisation and friendship quality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anxiety in childhood.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60, 1-10.
- Radmacher, K. & Azmitia, M. (2006). Are there gendered pathways to intimacy in early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friendshi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1(4), 415-448.
- Rawlins, W. K. (2009). *The compass of friendship: Narratives, identities, and dialogues*.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Reis, H. T., Collins, W. A. & Berscheid, E. (2000). The relationship context of human behavior an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6(6), 844-872
- Roy, R., Benenson, J. F. & Lilly, F. (2000). Beyond intimacy: Conceptualizing sex differences in same-sex friendship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4(1), 93-101.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36(3-369).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E. (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00-808.
- Shimizu, H., Nakashima, K. I. & Morinaga, Y. (2019). The Role of Individual Factors in Friendship Formation: Considering Shyness, Self Esteem, Social Skills, and Defensive Pessimism.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61(1), 47-56.
- Sullivan, H. S. (Ed.). (201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Y: Routledge.
- Trochim, W. M. (1989). Concept Mapping for Evaluation and Planning.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1), 1-111.
- Weiss, L. & Lowenthal, M. F. (1975). Life-course perspectives on friendship. In M. F. Lowenthal, M. Thurnher, D. Chiriboga (Eds.), *Four Stages of Life* (pp. 48-61). San Francisco: Jossey-Bass.
- Wissink, I. B., Deković, M. & Meijer, A. M. (2009). Adolescent friendship relations and developmental outcomes: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3), 405-425.
- Youniss, J. & Haynie, D. L. (1992). Friendship in adolescenc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3(1), 59-66.

원 고 접 수 일 : 2020. 10.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1. 21.

최종게재결정일 : 2021. 01. 26.

A Concept Mapping Stud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Conceptions of Friendship

EunYoung Lee

JeongMi Lee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friendship and to inductively conceptualize friendship. The concept mapping method which is used to quantitatively analyze qualitative data was used to identify and visualize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friendship. Through a brainstorming process, 93 statements were generated by boys and 100 statements were generated by girls, each set of which were sorted and categorized to generate concept maps. The final concept maps from both group equally had two dimensions: 'Practical-Conceptual' and 'Behavioral-Emotional'. The number of categories was equal to four,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specifics of the statements in the category. Boys tended to conceptualize friendship as a source of happiness; a type of informal relationship through which they could share their everyday lives; and provide mutual care and engage in emotional bonding. In addition to those conceptualizations, girls also tended to conceptualize friendship as an affective alliance through which they displayed devotion to each other. Boys regarded the sympathy and bonding found in and the happiness produced by friendship as more important elements, whereas girls regarded the care and support found in and the informal nature of friendship as more important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Friendship, Concept mapping, Multidimensional Scale, Cluster Analysis